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추석 잔치 안내**
오늘 친교 후 노래 자랑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인기상, 구역 응원상 등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새 미사곡 연습**
다음주 미사 시작 전에 새 미사곡 연습이 있겠습니다.
- **제63차 성령 세미나**
일시 : 10월 28일(일) 오후 5시 - 10월 31일(수)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참가비 : \$340(숙식 포함) 문의 : 김충수 마르코
- **캠든 교구 마리아 순례단**
일시 : 10월 13일(토)
출발 : 오전 7시 St. Mary 성당 주차장
장소 : 워싱턴 내셔널 쉬라인 참가비 : \$25(왕복 버스비)
행사 : 내셔널 쉬라인 파이프 오르간 성음악 연주, 묵주기도, 고백성사, 주교님 집전 대미사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요가반 가을학기 수강 신청**
일시 : 9월 10일(월) - 12월 10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성당홀(친교실) 수강료 : \$30(3개월)
준비물 : 요가 매트, 간편한 운동복 차림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기금 조성에 정성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경실 스텔라 자매님께 연락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그리고 장석영 요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엘리자벳 구역 : 10월 5일(금) 오후 7시에 송헌배 안드레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전시회(The Half)**
권명자 율리안나 자매님의 미술 전시회가 9월 1일(토)부터 29일(토)까지 체리힐 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로사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엘리사벳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의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의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4번 찬양하라
제1독서	요엘 예언서 2, 22-24. 26 그노드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 13-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 루카 12, 15-21
봉헌성가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성체성가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한가위 9월 23일	연중 제26주일 9월 30일	연중 제27주일 10월 7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신선희 카타리나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김정숙 이사벨라
봉헌자	김희동, 이상민	김성욱, 강옥화	

오늘의 묵상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예로부터 한가위 밤이면 보름달을 보고 소망을 빌곤 하였습니다. 달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처럼 차고 기울고 사라졌다가는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달은 마치 탄생, 성장, 쇠퇴, 죽음, 그리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아울러 한가위에는 한 해의 결실에 감사드리곤 했지요. 우리도 보름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보름달이 어두운 밤길을 비춰 주듯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춰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한가위에는 떨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려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는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함이지요. 신앙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의 품입니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우리 삶의 근원과 최종 목적지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또한, 한가위에는 돌아가신 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 추억만을 회상하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사건이 지닌 의미를 오늘의 삶 안에서 되살려 내는 것이지요. 그가 나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게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을 비롯하여 먼저 가신 이들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동시에 온 집안을 한 식구로 묶는 구심점도 되는 것이지요.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피운 꽃에 이어 지금 우리가 꽃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2분 교리

하느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인데, 생명의 은총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은총이며, 도움의 은총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총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우리들의 **주일정성** <9월 16일(일)>

봉헌금	\$613.00
교무금	\$350.00
	김윤선(7-10), 최미라(7-9)
Total	\$963.00